

2008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출품작 컨셉 글입니다. a3 용지의 드로잉은
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.

금강 자연 미술 비엔날레 출품작 컨셉 설명

이번 출품작은 설치작품과 배너가 한 쌍이 되어 서로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
것으로 구성 되어있다. 작품의 정치적 주제는 금강운하를 반대하는 것이지만
그 반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금강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 지키
자는 에코 아나키즘적 입장을 표명하는 카피가 작품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
있다. 금강을 배경으로 금강 변에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쌓거나 늘어놓은
후, 그 위에 “ 날 그냥 흐르게 좀 내버려둬 ” 란 카피를 새긴다. 그리고 그
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배너를 만든다. 이때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, 금강
지키기 미술가 동맹,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, 등 단체의 로고를 넣어 금
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의 출품작인 이 배너가 금강운하 반대 및 금강 지키기
운동에 동참하는것 임을 드러나게한다.

이 작품 안에 담겨진 또 다른 발언은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가 이제는 정
치적이며 역사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도 좀 포함 시켜줘야하지 않겠느냐
는 것이다. 자연을 지키는 일이 곧 정치적 의제 임을 어찌 외면 할 수 있겠
는가?

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및 금강 지키기 미술가 동맹과 함께 개막행사 때
어떤 이벤트를 할까, 따로 구상하고 있다.

2008. 3. 8 김용익